

의과대학 동아리 MExIM (More Experience In Medicine) 새 집행부 출범



국제 의료/의학 경험을 쌓고자 모인 본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아리인 MExIM (More Experience In Medicine)에 3월 1일부터 새 집행부가 출범하였다. 집행부는 본과 3학년으로, 심민규 학생(왼쪽 사진)이 회장을, 이지양 학생(오른쪽 사진)이 총무를 맡는다. 집행부의 임기는 1년으로, 2025년 2월말까지 활동한다.

MExIM은 2004년에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학내 동아리로, 회원은 총 20여명이다. 대다수가 해외 실습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수련이나 박사 과정 혹은 이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 공부 방법이나 미국에서의 실습 정보를 주로 공유한다. 2023년 부터는 우리 미주 의대 동창회와도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만남의 자리를 갖고 있다.